

광주 17개 초교, 인공지능 활용 영어수업 도입 움직임

광천초서 AI(인공지능) 활용 영어 수업 워크숍



광주광천초등학교 거점영어체험센터가 2일 관내 17개 초등학교 교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영어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등 인공지능 활용 수업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4차 산업 혁명과 미래 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학교 영어 교육 현장에 변화와 도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영어

체험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바탕으로 초등 영어 교육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광주광천초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영어체험센터에서 실시했던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체험 수업을 교사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실제 영어체험수업에 적용해보면서 겪었던 여러 시행착오나 노하우를 일선 현장의 교사들에게 공

유하여 워크숍에 참여한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기획할 수 있는 소양과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희망에 따라 인공지능 챗봇 제작을 직접 해보면서 인공지능을 영어 수업에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었다.

워크숍에 참여 한 교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영어 수업에 활용할지는 것인지 막막했는데 직접 체험을 해보고 학생들이 체험했던 사례들을 소개 받으니, 추후 영어 수업 시간에 인공지능 활용하는 것을 꼭 도입 해야겠다."고 말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대화가 마치 원어민과 대화하는 듯했다"며 "수업에 도입하면 학생들이 많이 좋아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인호 기자

조정자 광양교육장, '닥터헬기 소생 릴레이 캠페인' 동참



조정자 광양교육장이 9월 30일 '닥터헬기 소생 릴레이 캠페인(닥터헬기 소생은 생명입니다)'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25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의 지명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것이다.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은 의료용 헬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헬기의 소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진행되는 릴레이 홍보활동이다. 특히 이 소음은 풍선이 터지는 소리(115 데시벨)에 착안하여 캠페인 참여자가 풍선을 터뜨리는 등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 교육장은 2019. 하반기 교(원)감 연찬회 때 참석한 관내 교(원)감 선생님 및 교육지원청 직원

60여명과 함께 '닥터헬기 소리는 다소 불편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소리이다. 우리 다함께 참아줄 수 있죠?' 라고 동참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다음 주자로 정현복 광양시장, 김재흥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엄소영 광양학부보 네트워크 대표, 관내 교감선생님들을 지명했다.

이후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참여 동영상은 유튜브 및 전남교육 SNS에 올릴 예정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2019 학생독립운동 113초 영화제 공모 수상작 발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학생독립운동의 사회적 공감 형성과 학생들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9 학생독립운동 113초 영화제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영상작품 영화제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11월 3일인 점에 착안하여 113초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 작품을 발굴하는 대회다.

'11·3 학생독립운동은 []

이다'라는 주제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개인 7편, 팀 24편 등 총 31편, 85명이 참가했다.

심사결과, 대상에는 김유정(대성여중, 3)팀이 교육부장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어 최우수상에 남진희(광주여고, 1)팀이 국가보훈처장상을, 우수상 2팀에 김이안(울산 학생중, 2)팀, 형준한(광주제일고, 2)팀이 광주시교육감상을, 장려상 4팀에는 박성연(충북 음성고, 2)팀, 윤재영(광주동명고, 3)팀, 송지훈(운남고, 1)팀, 임형규(문성고, 2)팀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을 각

각 수상하게 된다.

심사는 대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9월부터 외부 전문 심사위원을 위촉 구성하여 작품의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1, 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대상 1팀(부상 문화상품권 50만원), 최우수상 1팀(부상 문화상품권 30만원), 우수상 2팀(부상 문화상품권 각각 20만원), 장려상 4팀(부상 문화상품권 각각 10만원)을 선정하고, 시상은 11월 2일에 있을 '전국 청년학생 문화예술 축전'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고흥 두원초, 가족과 함께하는 야영 수련활동 실시



고흥 두원초등학교(교장 정오수)는 지난 1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교생 40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야영 수련활동을 실시하였다. 학교에서 하룻밤 자면서 아이들의 자율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1일차 활동은 거금대교에서 두레별로 함께 걷기 활동을 한 후, 인라인 타기, 자전거 타기, 보드 타기 등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

하여 거금대교를 왕복 하였다.

활동을 마친 후 두레별로 협의하여 정한 저녁 메뉴에 따라 마트를 방문하여 장도 보고 아이들이 직접 저녁을 준비 하였으며 부모님들은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주시는 등 야영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셨다.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청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흥연 예방 캠페인 활동, 체육활동, 퀴즈 맞추기, 촛불 의식 등의 즐겁고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았다.

2일차 활동은 기상악화로 인해 야외에서 계획했던 피구, 축구 대회를 실내 체육관에서 실시하였다. 야영과 관련된 모든 활동

들을 학생회를 주축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였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활동을 마친 후 학생들 소감을 들어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함께 잠도 자고 밥도 스스로 지어 먹고 하니 너무 즐겁고, 또 스스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니 힘들기는 했지만 너무 자신들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두원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고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좋은 추억 거리를 선물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고흥=한윤섭 기자

전남교육연수원, 자기주도형 국외 연수



전남도교육연수원 행정리더과정 연수생 35명이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덴마크 젤라프(Gerlev) 호이스콜레 인생학교에서 국외 현장 체험 학습을 했다.

학교 기숙사에 전 연수생이 입교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인근 초·중등학교 등 기관 방문을 했다.

이번 연수는 1인당 약 250만원 예산으로 종전 문화탐방 위주에서 교육현장 직접 체험 연수로, 여행사나 가이드에 의한 패키지여행에서 연수생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실행형 연수로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국외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한 행정 전문 리더과정 11기 정종태 연수생(송산초등학교)은 "덴

마크 행복 교육현장 방문 및 견학을 통해 이론 중심의 실내 교육을 넘어 스스로 계획하고 체험하는 참여 학습을 경험했다."면서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국외 현장 체험학습 기간 동안 방문한 덴마크 교육기관은 유치원 Slotsbjergby Daginstitution, 초등학교 Hashojsskolen, 에프터스콜레 Flakkebjerg, 고등학교 Slagelse gymnasium, 호이스콜레 Gerlev Idrætsskole 이다. 이를 위해 국외 체험학습 바로 직전 1주일 35시간 동안 방문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 실무 영어회화 프로그램 집중 연수에 현장 체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연수원은 지난 2월 덴마크 젤라프(Gerlev) 호이스콜레 인생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